

사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별로 공천 일정 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예비후보자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후보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온 지지자들도 덩달아 웃거나 우면서 본선으로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한 막바지 접전이 한창이다.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의 승리 이후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총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1차로 40여명의 공천 확정자를 발표했는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2차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54명의 단수 후보자와 20개 선거구 46명의 복수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송훈석 국회의원과 이동기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민원담당 행정관이 경선 후보자로 선정됐으며, 신창현 전 의왕시장은 제외됐다. 그동안 지역 일각에서는 중앙당에서 '정체성'을 중시한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송의원이 경선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으며,

반대로 3선의 송의원이 단수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처럼 향간에 나뉘던 말들이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민주통합당 속초-고성-양양선거구는 송훈석과 이동기 두 후보를 놓고 29일까지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한 뒤, 3월 2~3일경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최종 결정짓게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 보여줘야

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3명의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확정짓기로 해 각 예비후보자들이 막바지 지지세 확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해진 선거일이 있기 때문에 여야 양당 모두는 적어도 3월 11일 이전에는 공천자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명이 접전을 벌이는 민주통합

당이나 3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 새누리당 모두 단 1명의 공천자만 남아 본선에 뛰어들게 된다.

그런데 역대 선거과정을 돌아해보면, 국회의원선거든 지방선거든 항상 '공천 후유증'이 발생해 유권자인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했다. 올해도 이런 모습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공천에 관계하고 있는 정당 관계자

들은 최대한 공정한 기준으로 공천작업을 벌여 후유증을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들도 최선을 다해 땀 만큼 마음을 비우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개적으로 정당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경선이 치러지고 그 결과에 의해 공천자가 확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24일 민주통합당의 복수 경선자 발표가 있는 직후, 경선 참가 자격에서 제외된 신창현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결정에 승복하며, 그동안 격려하고 성원해주신 속초·고성·양양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아름답게 생각된다. 의왕시장을 역임하고 민주통합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은 '큰 정치인'에 속하는 그가 고향에서 경선에 참가조차 못하는 '굴욕'을 당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감동적이다.

그는 특히 "앞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낙후된 설악권의 경제와 정치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밝히, 지역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경선에 참가하게 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자들도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공천이 확정된 사람을 위해 힘을 보태고 나아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사는 이야기 남영선(칼럼위원, 주부)



태백 준령의 잔설이 녹을 때 즈음

어느덧 동장군의 매서움도 끝나고 애타게 기다리는 춘 3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추웠기에 3월의 봄소식이 유난히 기다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춘하추동 4계절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그 뚜렷함이 어디까지가 겨울이고 어디까지가 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절이 다 우리 곁에 슬며시 왔다가 사라지기에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봄을 맞이하기를 가슴 설레며 기다립니다.

어릴 적부터 꿈꾸어 오던 소망이 있습니

다. 겨울 태백준령이 설산으로 변할 때는 아름다운 자태보다는, 태백준령의 잔설 때문에 쓰늘한 칼바람과 싸워야 했고, 언젠가 눈이 다 녹을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거탄진(거진의 옛 이름)을 감싸고 있던 높은 태백준령이 푸르름으로 덮일 때 즈음,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서 멋있게 내 소망을 이루어보리라 사색도 했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60. 고향에 돌아와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봉양에 남편 시중에 생활고와 아이들 교육에 내 정성을 바친 것이

덧없고 쓸쓸하고 허무하기도 하지만, 기쁜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태백준령은 또 한해가 덧없이 흘러 허무함을 느끼겠지만, 60 평생 고향에 돌아와 서 있는 지금은 매일 달라지는 백성의 일출도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수산물에 있는 날엔 희열도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따뜻해지는 봄. 올해도 바다에서 모든 생선들이 대 풍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군민으로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태백준령의 잔설이 녹을 때 즈음 이곳에서 따듯한 봄은 우리 곁으로 오

겠지요. 조경을 잘해 놓은 연산홍도 따듯한 봄을 맞이할 생각으로 꽃봉우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들도 흑룡의 해인 2012년 봄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친절할 밝은 마음을 가진다면, 올 한해도 흐뭇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모든 군민들 밝고 건강하세요.



지난해 5월 경 거진 동화사에 연산홍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직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수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국 박선애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